

# 제주도 농촌지역내 돌담 문화자원의 활용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최 용 북

제주대학교 관광개발학과

## A Study on the Status of Stonewall as a Cultural Resource in Rural Regions at Jeju Island

Yongbok Choi

Department of Tourism Development, Jeju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 Stonewall in Jeju has been regarded as the one of the most esthetic landscape in rural regions. In addition, they have been played as a useful facility to protect houses or crops from strong winds, but also to indicate the boundary of ownership. In the recent research, stonewall has been appointed as the one of important components in rural landscape. Thus, stonewall in Jeju retains intrinsic and real value by many usages in rural regions. However, in spite of it's value, stonewall has been abandoned without any concerns and political measures. Now stonewall is urgently needed to be dealt by a certain political measure for protection. Therefore, the depth of concerns and systematic management measures for protection should be discussed and made, otherwise the destruction of these natural valuable structures will be continued. In this sense, the purpose of this paper, first of all, is to examine the status of stonewall in jeju. And then, with the result of this examination, political measures and suggestions to protect stonewall are proposed. Several areas such as Sungsan, Sinchon, and so on in Jeju are selected as the sample areas for this study, and examination are carried with a wide range of literature reviews and the GIS technology for data collection and analyses.

**Key words** : Stonewall, Jeju, Cultural resource, GIS, Rural landscape

### I. 서 론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주도에는 화산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검은 현무암이 지천으로 널려있어 제주 땅은 ‘돌밭’이라고 부를 정도로 돌이 많이 존재하였고 제주도민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돌을 경작을 위해 밭 귀퉁이에 모아 쌓아놓거나 경계를 표시하면서 돌담이 형성되어 왔다. 돌담은 경작공간을 줄이지 않고 밭을 정리할 수 있는 뿐만 아니라 바람을 효과적으로 막는 방풍막이 되어 흙이나 씨앗의 불림을 막아주는 바람막이 역할을 하는 등 제주 농경에 없어서는 안 될 장치로서 자연스럽게 농촌의 대표적 경관을 형성하여 왔다. 그러나 제주도 돌담은 기능상, 특성상 세계적으로 독특하고 희귀한 문화유산임에도 불구하고 무한한 잠재적 가치와 실질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훼손이

가속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돌담은 최근 연구에도 농촌 경관을 구성하는 자원 가운데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경관 자원으로서 평가받고 있으며 시급히 정책적 수단이 강구되어야 할 분야로 지적되고 있다(농촌자원개발연구소, 2004). 하지만 급속한 도시화와 농업의 몰락, 그에 따른 농업형태의 변화 등으로 제주도 돌담의 훼손은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일단 한번 훼손되면 완전복원이 불가능하고 일부복원에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자원보전과 제주농촌의 돌담 경관관리 측면에서 정책적 개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돌담에 대한 실태조사와 체계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전을 위한 일련의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나 현재 제주도 돌담에 대한 실태나 훼손정도에 대한 자료나 연구가 미약한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제주도 돌담의 실태를 우선 파악하고 훼손정도를 추정하고자 한다. 또한 최근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을 활용하여 각종 시설물을 효과적으로 분석하고 관리하고 있는바 GIS를 돌담관리에도 적용시켜 체계적 관리를 위한 GIS의 활용

Corresponding author : Yongbok Choi

Tel : 064-754-3174

E-mail : ybchoi@chej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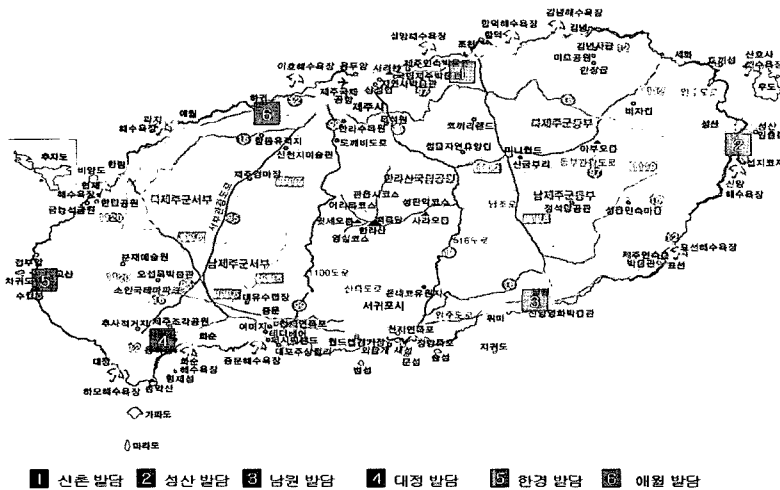


그림 1. 돌담 조사를 위한 샘플지역 개관도.

가능성도 검증하고자 한다. 이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돌담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제주도 돌담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문헌연구와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한 기술적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문헌연구는 돌담과 관련된 역사와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설화집으로부터 사진자료에 이르기까지 신빙성이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돌담의 사회적 기능과 문화적 가치를 정립하는데 활용하였다. GIS는 지리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리·분석하는데 활용되는 첨단 기술도구이다. 이러한 GIS를 활용한 기술적 분석방법으로 1차적으로 위성영상(Ikonos 해상도 1m×1m, 2001)과 수치지도를 수집하여 현황분석에 활용하였다. 현황분석은 육안분석, 현장조사, 조정 등 몇 차례의 분석과정을 거쳤다. 돌담현황에 대한 육안분석은 위성영상과 수치지도를 오버레이(Overlay)한 다음 돌담으로 구별되는 시설물을 오토캐드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수작업으로 도면에 전부 표시하였다<그림 2 참조, 붉은색 라인, p. 5>. 1차적으로 완성된 도면을 참고하여 2차적으로 현장지역탐방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장조사는 영상자료를 육안으로만 분석하기에는 정확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와 함께 돌담의 속성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돌담의 속성자료로서 돌담의 높이, 길이, 폭, 형태, 훼손상태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수집하였으며 1차 육안조사와 비교하여 훼손상태 등을 점검하였다. 1차 육안분석과 현장조사를 통해 얻어진 자료를 종합하여 조정과정을 거친 후 최종적인 돌담현황도면<그림 2 참조, p. 5>을 작성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현황과 훼손정도를 파악하였다. 특히 훼손율은 2001년의 영상자료와 최근의 영상자료를 비교해야하나 자료 획득의 어려움

으로 인해 2005년에 실시한 현장조사에서 수집된 현장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4년간의 변동상황을 기준으로 훼손정도를 측정하였다. 또한 시간과 경비문제로 제주전역을 조사할 수 없어 아래의 그림에서와 같이 지역별로 구별하여 대표성을 지니는 신촌, 남원, 성산, 대정, 한경, 애월 등 여섯 군데의 농촌지역을 샘플링(1Km×1Km)하여 돌담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 II. 제주도 돌담의 특징과 문화적 가치

### 1. 돌담의 종류와 특징

제주 돌담은 밭, 주거공간, 해안 등지에서 소유권 경계, 바람막이, 방어시설 등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축조되었다. 따라서 돌담의 종류, 축조방법이나 형태도 그만큼 다양하다. 돌담의 종류로는 밭담, 울담, 원담, 산담, 잣담 등으로 구별된다. 밭담은 제주 농촌지역의 대표적 돌담으로 밭의 경계와 흩이나 씨앗의 불림을 막기 위한 방풍막이의 목적으로 축조되었으며 울담은 가옥을 중심으로 담의 역할과 마·소의 사육을 목적으로 축조하였다. 원담은 어로작업을 목적으로 해안 돌바닥에 축조하여 밀물과 썰물의 차를 이용하여 고기를 잡는데 활용하였다. 또한 산담은 무덤의 경계를 표시하는 담으로 사각형과 원형으로 축조하였으며 잣담은 과거 고려시대 대규모 목마를 목적으로 마·소의 이동을 통제하기 위해 제주 중산간지역에 축조되었던 담이다. 돌담을 쌓는 방식은 백켓담, 외담, 잣길, 경치돌담, 잡석쌓기 등으로 나누어진다. 백켓담은 밀의 기초는 작은 돌로 쌓고 윗부분은 큰 돌로 쌓는 형태의 담이며, 외담은 주변에 흩어져 있는 돌을 한군데로 모아 외줄로 쌓는 형태의 담을 말한다. 잣길은 돌담위로 사람이 걸을 수 있도록 평평하게 쌓은 형태의 담이며

경치돌담은 기능보다는 조경을 목적으로 아름답게 쌓는 담이다. 잡석쌓기는 매립지의 외부벽면에 큰 돌로 쌓는 형태의 담을 말한다. 돌담이 쌓여진 형태를 기준으로 보면 기초부분은 넓고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거친 돌 쌓기와 기초부분과 윗부분이 거의 일정한 다듬은 돌 쌓기 형태로 구별할 수 있으며 쌓는 방법에 따라 막쌓기(허튼층 쌓기)와 바튼층 쌓기(성층 쌓기)로 구별되어진다(강정호, 2000, 김종석, 1998, 제주도, 2003).

## 2. 돌담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

제주도는 주로 알카리성 용암류의 연속적인 분출에 의해 만들어진 순상화산체로 신생대 제3기 말로부터 제 4기에 걸쳐 형성된 우리나라에서 가장 젊은 지질로 구성되어 있다(제주도문화해설사회, 2004). 따라서 섬자체가 돌로 이루어진 화산섬이라 할 수 있고 일상생활과 오래전 서부터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농기구재료와 밭의 경계에 활용되는 생산재, 외부로 부터의 방어시설, 신앙대상의 상징, 또한 사회적 기능재로서 돌을 폭넓게 사용하여 왔다. 그 가운데 돌담은 생산재로서 기능을 가지고 오래전서부터 보전되어 왔다. 돌담의 최초 축조연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고려 때의 김구라는 제주관판 부임 후(1234)로 추정하고 있어 상당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김종석, 1998). 이에 따라 문화적 가치로서도 상당히 높게 인정받고 있는데 문화관광부에서는 돌담을 사회 및 생활 상징으로 100대 민족문화상징으로 선정하였다. 그동안 무관심으로 방치되어 왔지만 돌담이 제주의 상징. 현무암 돌담 그 자체가 빚어내는 경관의 아름다움을 이유로 국가적 차원에서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다. 또한 농촌자원개발연구소(2004)에서 실시한 보전가치가 높은 농촌경관자원평가조사에서도 돌담의 중요도는 4.44(5점 척도)로서 18개 경관자원 분야 가운데 전통가옥(4.70), 전통마을 쉼터(4.44)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순위로 조사되었으며 최근에는 농촌의 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적극적 정책적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성주인(2005)은 일반적으로 농촌 경관은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되는 경우가 많고 다른 활동의 부산물로 만들어져 공공재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어메니티 자원으로서 갖는 가치가 새로이 주목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많은 선진국들에서는 이미 농촌의 경관 보전 및 어메니티 개발·이용을 목적으로 이해당사자와 주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다양한 방안들 즉 주민이 경관자원을 보전하는 대신에 정부가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직불제를 실시하고 있는 등 농촌경관 보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제도가 구체화되는 추세에 있다(박동규 외, 2004). 돌담은 제주 농촌의 대표적 경관이며 자원이라 할 수 있다. 돌담의 문화적 가치가 속히 제대로 평가 되어 보전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III. 제주도 돌담의 현황 및 보전 실태

### 1. 제주도 돌담의 현황

조사된 제주지역의 대부분은 밭농사와 과수를 재배하는 지역적 특색을 가지고 있으며 소유권 경계표시와 밭의 경계 및 마·소로부터의 농작물 보호하기 위해 축조된 밭담이 대종을 이루고 있으며 수시로 개·보수가 이루어진 흔적을 가지고 있다. 돌담의 재료는 다공질 현무암이고 각 지역의 세부 현황은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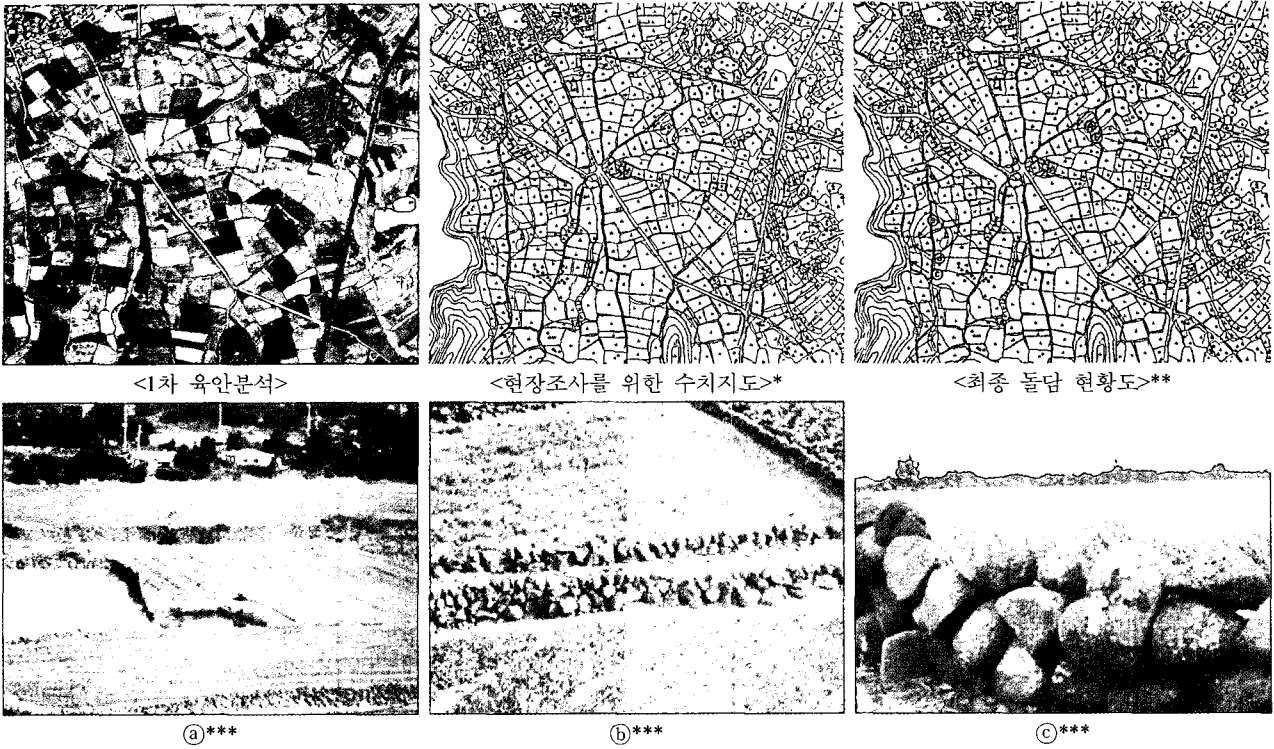
#### 가. 한경지역 돌담 현황

조사지역은 제주도 북제주군 한경면 용수리 일대(1km×1km)이며, 축조방법은 외담(허튼층 쌓기)이다. 타 지역에 비해 밭담이 낮고 훼손과 개보수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그림 2>. 2001년 영상자료를 바탕으로 1차 육안분석으로 돌담을 수치지도에 표시하여 돌담의 총 연장길이를 모두 합산한 결과 총 연장길이는 42,803m이다<그림 2-현장조사를 위한 수치지도>. 1차 작성된 돌담 수치지도 가지고 현장에 나가 육안으로 분석된 돌담과 현장에 남아있는 돌담의 유무를 모두 비교하고 훼손정도를 파악한 뒤 최종 돌담 현황도를 재작성하였다<그림 2-최종 돌담 현황도>. 또한 현장조사에서 관리에 필요한 속성자료를 일일이 수거하였다. 수집된 담의 속성정보로서 담의 높이는 최고 130cm, 최저 40cm, 평균 80cm로 조사되었으며 돌담의 폭은 최대 70cm, 최저 35cm, 평균 45cm로 조사되었다. 현장조사 결과 재작성된 최종 돌담 현황도에 나타난 돌담의 길이를 합산한 결과 총 담의 연장길이는 35,672m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약 7,130m가 4년 동안 훼손된 것으로 추정되어져 훼손율이 약 16.7%에 이르는 등 심각한 훼손이 진행되고 있다.

#### 나. 남원지역 돌담현황

조사지역은 남제주군 남원읍 남원리 일대(1km×1km)로 서귀포 인근 지역이며, 축조방법은 외담(허튼층 쌓기)이다. 바람이 강한 지역적 특색으로 방풍을 위해 축조되어졌으며, 방풍림이 많아 돌담 경관이 별로 좋지 않다<그림 3>. 1차 육안분석으로 조사된 돌담의 길이는 총 38,450m이다. 현장조사를 통해 조사된 담의 속성정보로서 담의 높이는 최고 180cm, 최저 40cm, 평균 120cm로 조사되었다. 돌담의 폭은 최대 170cm, 최저 25cm, 평균 35cm로 조사되었다. 현장조사 결과 돌담의 길이는 37,121m로 약 1,329m 정도가 훼손된 것으로 추정되어지며 훼손율은 약 3.5%로 조사되었다.

최 용 복



\* 육안조사에 의한 돌담(붉은색 라인)을 표시  
 \*\* 현장조사 후 조정된 돌담현황(붉은색 라인) 표시  
 \*\*\* 돌담 현황도에서 사진의 위치를 표시  
 그림 2. 한경 지역 돌담 현황 분석도 및 주변 돌담 현황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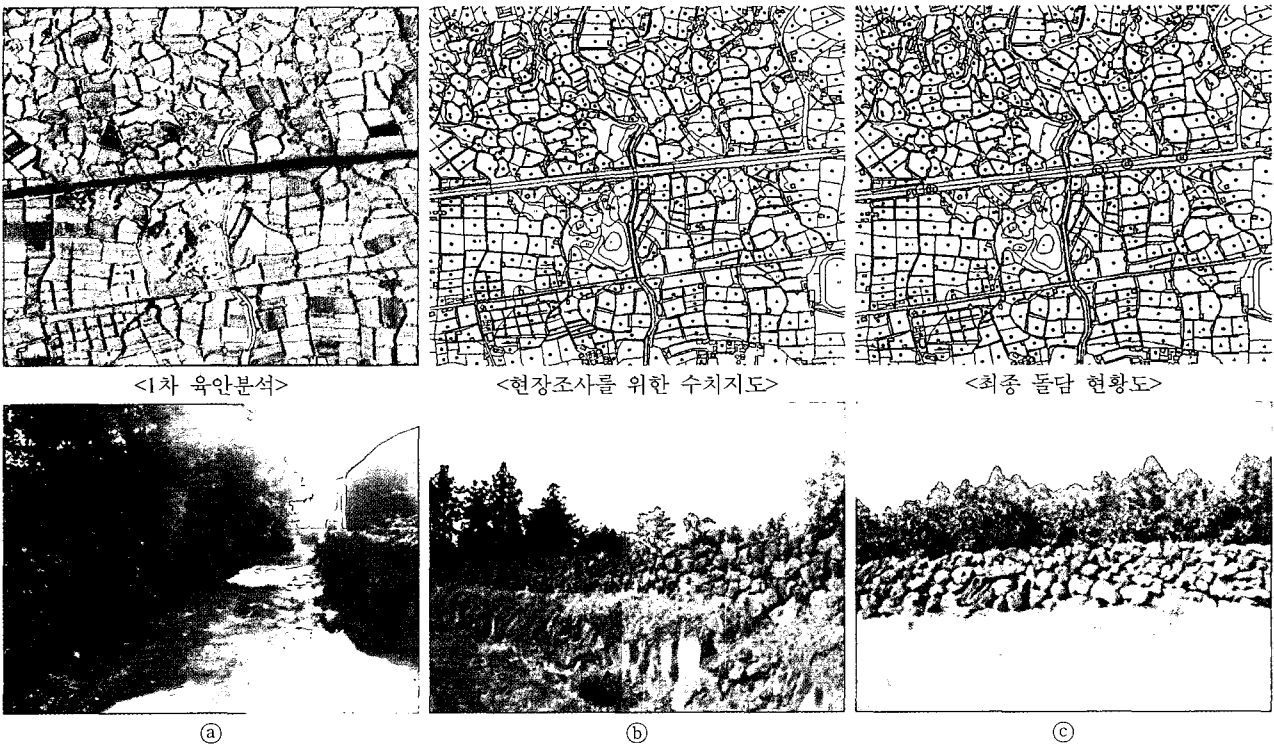


그림 3. 남원 지역 돌담 현황 분석도 및 주변 돌담 현황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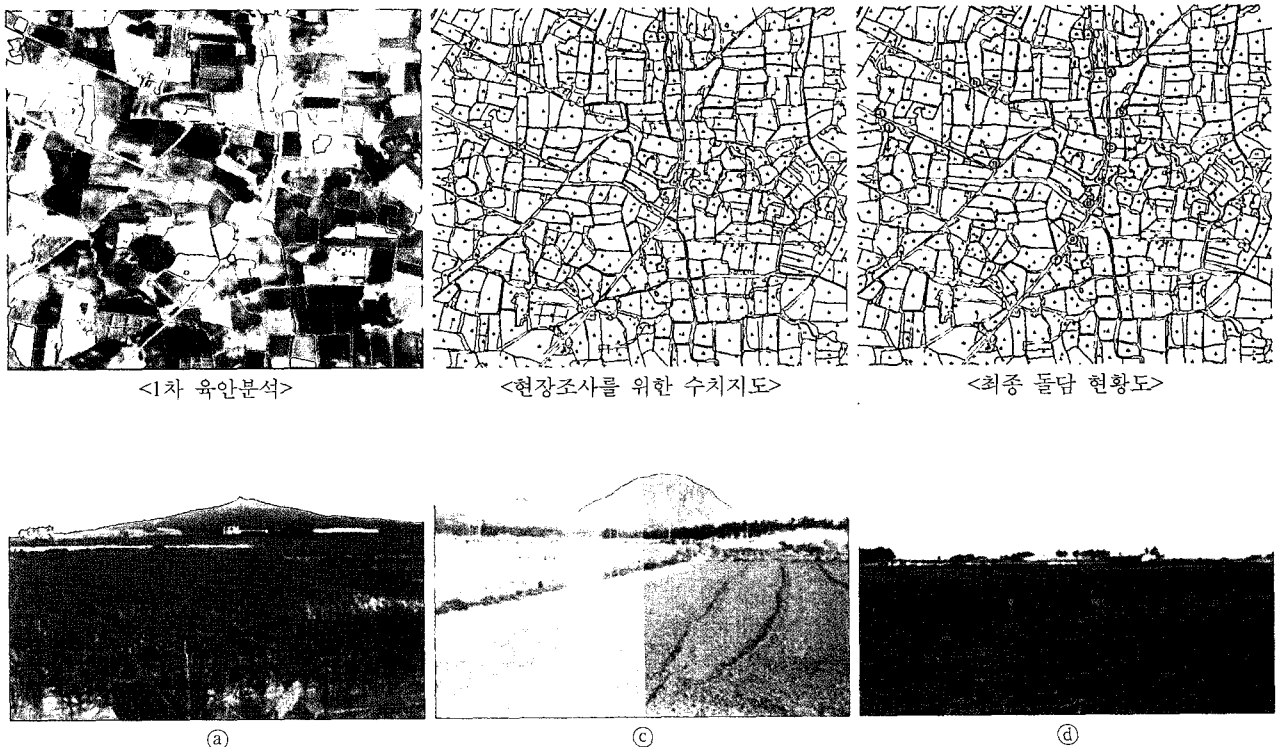


그림 4. 대정 지역 돌담 현황 분석도 및 주변 돌담 현황 사진.

**다. 대정지역 돌담현황**

조사지역은 남제주군 대정읍 인성리 일대(1km×1km)이며, 축조방법은 외담(허튼층 쌓기)이다. 돌담이 아주 낮게 축조되어 있고 방풍림이 적어 가시권이 넓은 것이 특징이다<그림 4>. 1차 육안분석으로 조사된 돌담의 길이는 44,202m이다.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된 담의 속성정보로서 돌담의 높이는 최고 140cm, 최저 40cm, 평균 70cm로 조사되었다. 돌담의 폭은 최대 80cm, 최저 30cm, 평균 40cm로 조사되었다. 현장조사 결과 총 돌담의 길이는 42,909m로 약 1,293m가 훼손된 것으로 추정되어지며 훼손율은 2.9%로 조사되었다.

**라. 성산지역의 돌담현황**

조사지역은 제주 동부지역으로 남제주군 성산읍 신양리 일대(1km×1km)이며, 축조방법은 외담(허튼층 쌓기)이다. 돌담이 정리가 잘 되어 있고 방풍림이 적어 경관가치가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이다<그림 5>. 1차 육안분석으로 조사된 돌담의 길이는 총 48,642m이다.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된 담의 속성정보로서 담의 높이는 최고 130cm, 최저 50cm, 평균 100cm로 조사되었다. 돌담의 폭은 최대 80cm, 최저 28cm, 평균 38cm로 조사되었다. 현장조사 결과 총 담의 길이는 45,395m로 약 3,247m가 훼손된 것으로 추정되어지며 훼손율은 약 6.7%로 훼손이 심각히 진행되고 있다.

**마. 신촌지역의 돌담현황**

조사지역은 북제주군 조천읍 신촌리 일대(1km×1km)로 제주시에 인접한 지역이며, 축조방법은 외담(허튼층 쌓기)이다. 돌담이 높게 형성되어 있지만 훼손이 비교적 적은 것이 특징이다<그림 6>. 1차 육안분석으로 조사된 돌담의 길이는 총 40,430m이다.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된 돌담의 속성정보로서 담의 높이는 최고 220cm, 최저 80cm, 평균 130cm로 조사되었다. 돌담의 폭은 최대 60cm, 최저 26cm, 평균 40cm로 조사되었다. 현장조사 결과 총 담의 길이는 39,526m로 약 904m가 훼손된 것으로 추정되어지며 훼손율은 약 2.2%이다.

**바. 애월지역의 돌담현황**

조사지역은 북제주군 애월읍 신엄리 일대(1km×1km)이며, 축조방법은 외담(허튼층 쌓기)이다. 바람이 강한 지역이며 해안과 근접하여 해풍을 막기 위해 축조되어졌으며, 비교적 훼손도가 낮고 정리가 잘 되어 있으며 높낮이와 폭의 편차가 큰 것이 특징이다<그림 7>. 1차 육안분석으로 조사된 돌담의 길이는 총 44,449m이다.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된 담의 속성정보로서 담의 높이는 최고 130cm, 최저 40cm, 평균 80cm로 조사되었다. 돌담의 폭은 최대 110cm, 최저 30cm, 평균 50cm로 조사되었다. 현장조사 결과 총 담의 길이는 44,153m로 약 296m 정도만 훼손된 것으로 추정되어지며 훼손율은 약 0.67%로 조사지역 중 돌담이 가장 양호하게 보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 성산 지역 돌담 현황 분석도 및 주변 돌담 현황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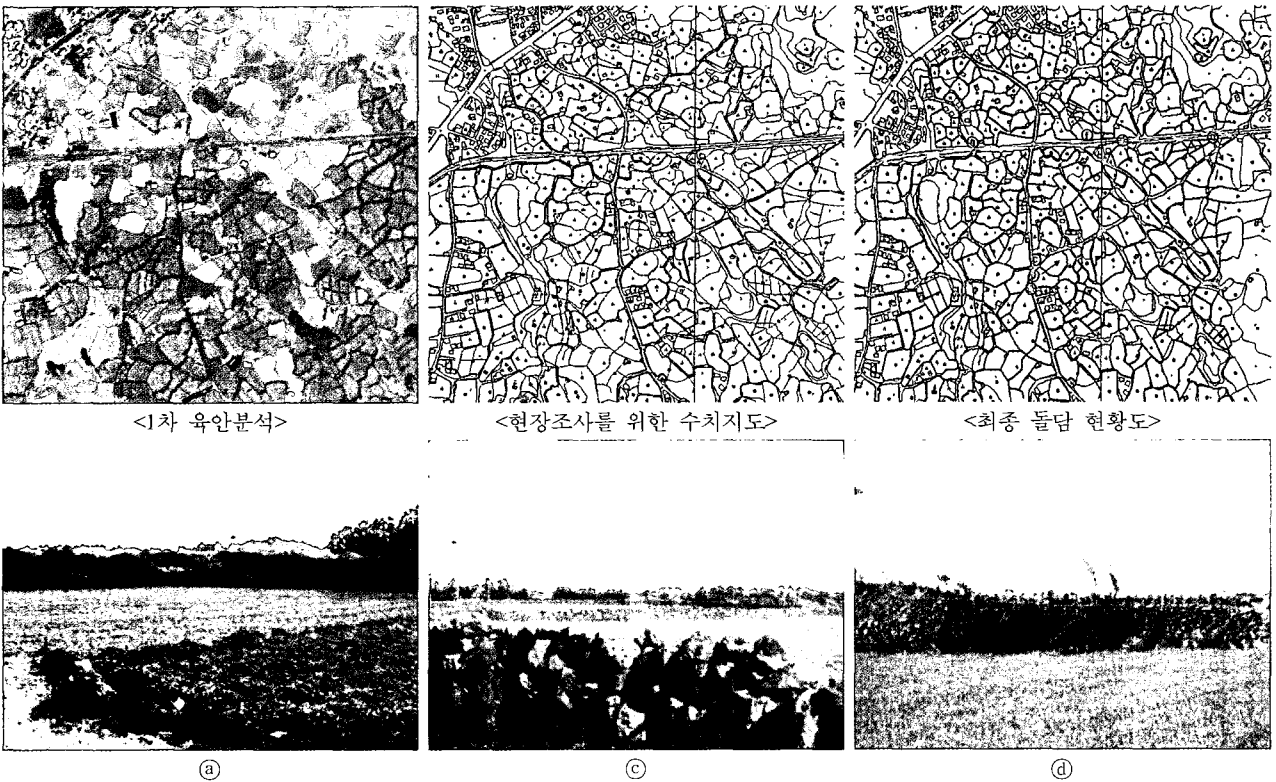


그림 6. 신촌 지역 돌담 현황 분석도 및 주변 돌담 현황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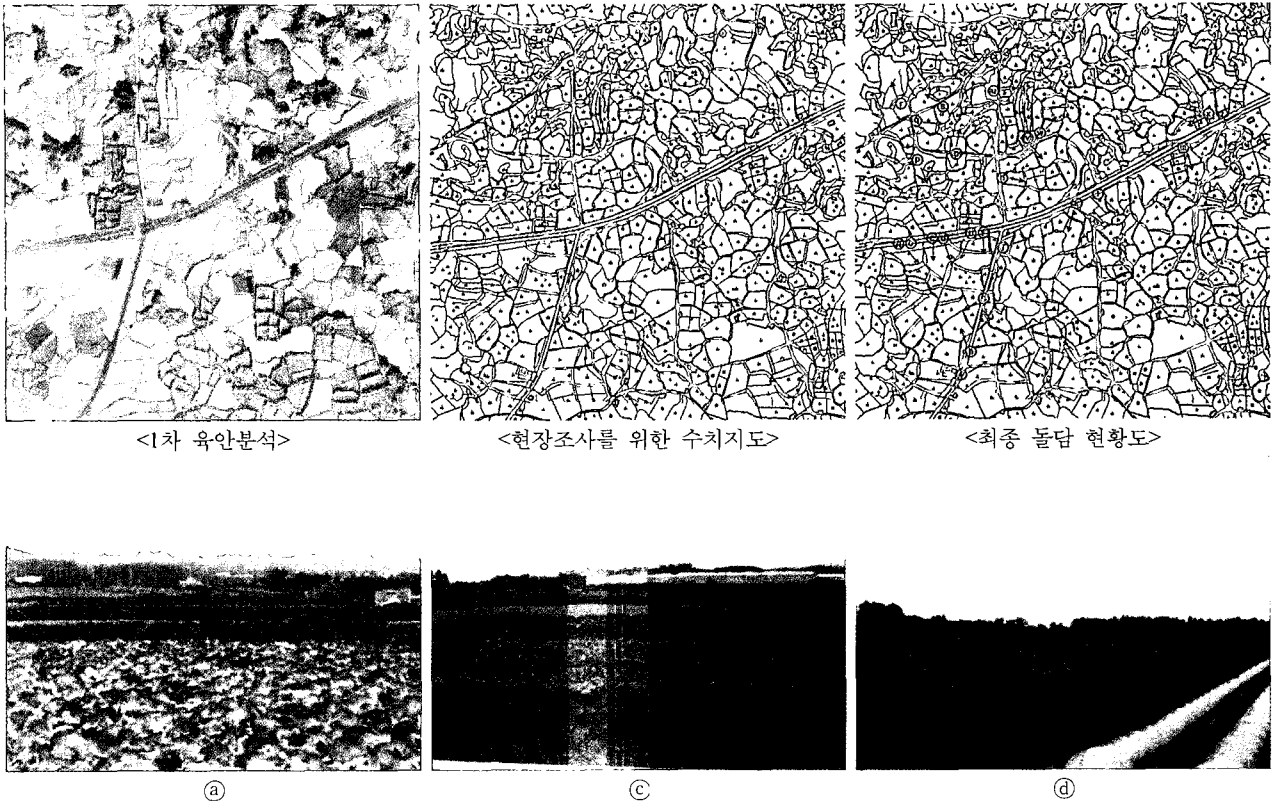


그림 7. 애월 지역 돌담 현황 분석도 및 주변 돌담 현황 사진.

## 2. 제주 돌담의 훼손 상황

2001년의 영상자료로 분석된 지역의 총 돌담 연장길이는 남원지역의 38,450m로부터 성산지역의 48,642m로 약 10,000m의 지역간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 외 지역은 40,430m로부터 44,449m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표 1>. 이를 평균으로 합산하면 평방 1Km당 돌담 길이는 43,163m에 이른다. 반면 2005년 현장조사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면 4년 동안 훼손율이 약 5.44%에 이르며 돌담의 평방 1Km당 길이는 40,796m로 2,637m가 줄어들었다. 따라서 매년 평균 1.36%의 돌담 훼손이 가해지고 있고 현재

농촌의 급격한 도시화추세에 맞물린다면 몇 년 후 더욱 심각한 훼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장조사에서 관찰된 훼손사례를 살펴보면 많은 사유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 자연적·인위적 영향에 따라 훼손된 뒤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비닐하우스 등의 새로운 경작형태 및 도로 등의 시설물 개발과 기타 신축에 따른 훼손이 발생하였다. 또한 돌담을 시멘트 등 다른 재료로 대체하면서 훼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IV. 제언 및 결론

제주의 돌담은 흔히 흑룡만리라 일컬어지고 있는데 현 무암으로 쌓여진 돌담을 모두 이으면 만리가 된다는 데서 나온 말이라 전해지고 있다. 제주 돌담은 제주의 대표적 농촌경관이자 오래된 문화적 자원이다. 또한 역사상 오래된 희귀한 자연유산이자 무한한 잠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에도 현재 그냥 방치되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훼손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음이 본 논문에서 파악되었다. 자원보전과 제주농촌의 돌담 관리를 위한 노력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방안이 절실한 상황이라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본문에서 살펴본 문헌과 GIS 등을 기반으로 한 향후 돌담의 보전과 관리를 위해 다음 세 가지 방

표 1. 2001년, 2005년 돌담길이 및 훼손율

| 지역 | 2001년<br>육안조사<br>(m) | 2005년<br>현장조사<br>(m) | 훼손<br>돌담길이<br>(m) | 돌담<br>훼손율<br>(%) | 비고     |
|----|----------------------|----------------------|-------------------|------------------|--------|
| 신촌 | 40430                | 39,526               | 904               | 2.24             | 제주시 근교 |
| 한경 | 42,803               | 35,672               | 7131              | 16.66            | 북제주군   |
| 대정 | 44,202               | 42,909               | 1293              | 2.93             | 남제주군   |
| 성산 | 48,642               | 45,395               | 3247              | 6.68             | 남제주군   |
| 남원 | 38,450               | 37,121               | 1329              | 3.46             | 서귀포근교  |
| 애월 | 44,449               | 44,153               | 296               | 0.67             | 북제주군   |
| 평균 | 43,163               | 40,796               | 2367              | 5.44             |        |



안을 제안하고자한다. 첫 번째로 효율적 관리를 위해 GIS를 활용한 돌담관리시스템의 구축, 두 번째로 보전을 위한 정부의 직접적 지원체계 확립, 세 번째로 돌담의 적극적인 문화자원화 방안 강구 등이다.

GIS를 활용한 돌담관리시스템은 우선적으로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며 GIS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다. 앞의 III장에서 GIS를 활용하여 돌담 실태와 훼손을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였으며 돌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될 경우 GIS를 돌담관리에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이 검증되었다. 다만 현실적으로 GIS를 도입하여 활용하는 데에는 GIS 프로그램 설치와 고가의 장비 구입 등 초기비용이 많이 들고 현장조사 등을 통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시간과 경비가 많이 소요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일단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완료되면 전체적인 현황파악이 가능하며 향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자료갱신을 통한 실태조사가 손쉽게 이루어져 장기적 측면에서 관리에 대한 경비절감과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현재 지적도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 GIS로 구축되어 인터넷을 통해 전국에서 실시간으로 확인되고 있어 일반인들의 관심과 이용이 높은 편이다. 따라서 돌담관리역시 인터넷을 통해 관련정보를 실시간으로 일반에게 제공할 수 있다면 돌담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성주인(2005)도 농촌의 자원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첫 번째로서 자원에 대한 조사와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역설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돌담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GIS를 활용, 일부지역의 자료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한 후 이것을 기반으로 일부지역이나나 실태 및 훼손정도를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만약 영상정보와 GIS를 활용하지 않고 현장조사에만 국한하였을 경우 지난 4년간의 훼손을 추정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며 단지 현황파악만 가능했을 것이라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가 시간과 경비 문제로 전 지역을 데이터베이스화하지 못하여 전체적인 실태를 샘플로서 추측하여 정확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 보다 신뢰성 있는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속적인 돌담관련 최신의 고화질 영상자료를 수집하고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꾸준히 자료갱신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노력이 계속되어 돌담의 관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방안으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이 이루어져 돌담의 보전을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면서 합리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돌담보전 직불제 방안 등을 고려해야한다. 직불제는 국내외에서 경관과 일부 특정물 보전을 위해 실

시하고 있는 효과적 제도이다. 돌담은 제주의 대표적 경관이며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되어온 공공재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선진국에서 농촌경관 보전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영국의 ESA(Environmentally Sensitive Areas) 및 CSS(Countryside Stewardship Scheme)제도 등을 돌담에도 적용해야 할 것이다. ESA는 토지소유자의 자발적 협력을 통해 농촌지역의 빼어난 경관, 야생 동식물, 역사적인 특성 보전과 효율적 경작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도입한 제도로 계약에 의해 지정 지역에 포함된 토지면적당 연간보상비용을 직접 지불방식으로 지원한다. CSS는 전원지역위원회에 의하여 시범제도로 처음 도입된 것으로 ESA 지정 지역 외부에 있는 친환경적 농촌경관 보전을 위해 보조금을 지불하는 정책이다. 국내의 경우 삼척시에서는 유채꽃 및 메밀꽃을 식재하는 경우 농지임차료와 경작비용을 해당 농가에 직접 지불하고 있으며, 평창군에서는 메밀 꽃밭 조성 시 현금을 해당 농가에 직접 지불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송미령 외, 2005). 제주 돌담 역시 역사성과 경관 및 문화적 가치면에서 이미 국가의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 만큼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보전할 가치가 있는 돌담을 발굴하여 훼손이 발생하기 전에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한 적극적 보전 수단을 마련해 보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농촌의 어메니티 자원으로서 돌담의 적극적인 문화자원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돌담경관이 우수한 지역에 제주 돌담마을로 지정하는 등, 보전을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자원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가까운 일본에서도 야자키현의 히노카게초의 조그만 마을을 이시카기 무라(돌담 마을)(石垣の村)로 지정하여 보전과 자원화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이 마을은 택지나 밭, 돌창고, 방풍담 등 취락 전체가 돌담으로 되어 있어 「돌담 마을」이라고 불리워지고 있다. 돌담은 지금으로부터 약 150년 전의 안정년(安政年, 1854-1860)에 축성되어진 것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관광자원화하여 방문객을 불러 모으고 여기서 나온 수입으로 더욱 돌담마을을 보전하고 가꾸면서 관리하고 있다. 제주의 돌담은 800여년전부터 시작되어온 우수한 역사와 농촌지역의 독특한 경관을 제공하고 있다. 돌담의 자원화방안은 제주라는 국내 최고의 관광지로서의 지역적 특색에 맞춘 잠재적 자원을 관리·보전함으로써 국가의 문화자원의 다양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2005년도 농림기술관리센터의 농림기술 개발연구과제의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 참고문헌

1. 강정효, 2004, 화산섬, 돌이야기, 제주: 도서출판 각
2. 김종석, 1998, 제주도 전통사회의 돌 문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 농촌자원개발연구소, 2004,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개발을 위한 환경자원의 가치평가
4. 박동규 외, 2004, 직접지불제 조정 및 효율화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5. 성주인, 2005, 농촌경관관리 실태와 정책방안, 농촌경제연구원
6. 송미령, 박경철, 2005, 농촌경관 보전을 위한 정책적 동향과 시사점, 농촌경제 28(3) : 121-137
7. 송미령, 성주인, 2005, 농촌관광의 비전과 전망, 농업전망 2005, 농촌경제연구원
8. 제주도, 2003, 제주도지
9. 제주도문화해설사회, 2004, 제주문화유산 들어다보기, 백록출판사
10. <http://www.jejudanawa.com>
11. <http://www.jejusamda.com>
12. <http://www.krei.re.kr>
13. <http://www.mct.go.kr>
14. <http://www.seogwipo.go.kr>